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신지리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여기가 불국토... 환희심 절로”

동국대 대각전

사천왕상 새겨진 유리문 지나
신 벗고 구품연지·불이문 건너
문수전과 보현전에 들어서면
수많은 부처님 환영의 미소

“도심포교당 공간조형의 모델”
건축상·디자인상등 잇달아 수상

“현대 정신으로 해석한 전통미의 극치.”
“도심 포교당 공간조형의 모델.”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 지어진 대각전에 대한 평가다.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은 법당 대각전. 대각전은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주최 ‘올해의 작품상’과 월간 <디자인> 제정 ‘올해의 디자인상’, 월간 <인테리어> 제정 ‘제2회 명가명인상’을 수상하는 등 공인을 받았다. 전통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 편리성을 최대한 살린 내부건축이 우수하다. 단색을 주로 한 색 배합과 전통문채와 빛을 증폭시켜주는 유리문을 적절히 사용해 모던(modern)한 감각이 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전통을 창조해낸 곳이라는 한결같은 심사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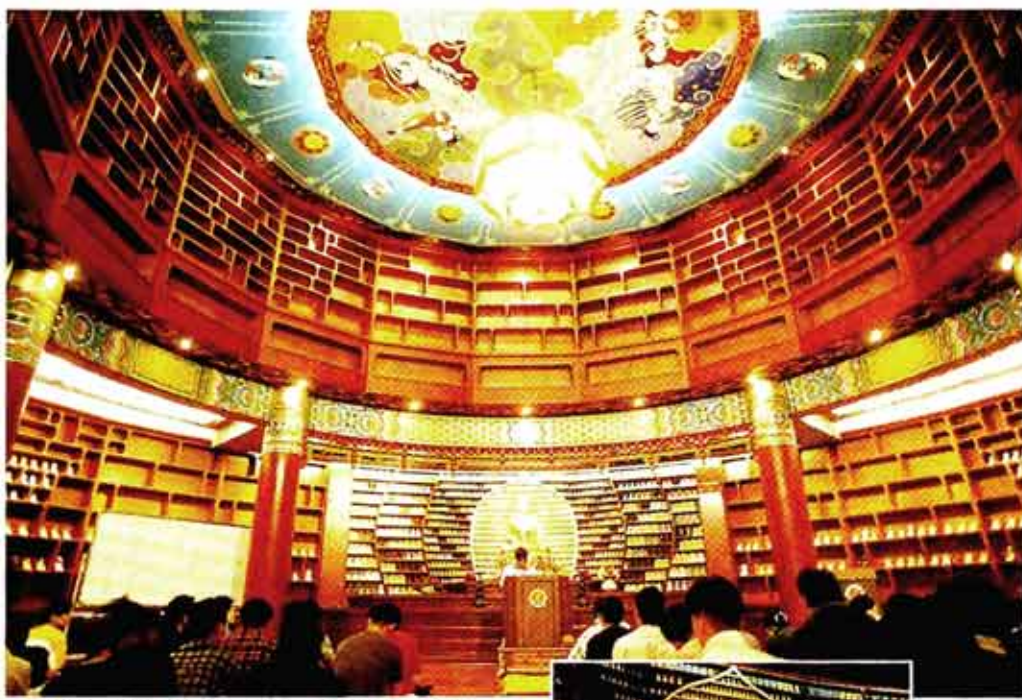
건축전문가들이 대각전을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짙은 색이 있는 조형미와 법당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살린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실제 대각전을 들어가 보기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97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건축담당 이도건축) 대각전은 일광단 공원과 경계를 이루는 숲속에 자리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 입구 좌우 원형계단을 통해 출입하도록 돼 있다. 입구에서부터 발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모두가 나무재로 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법당으로서의 대각전이 갖는 감동이자 특징이다.

대각전은 기존의 법당들과는 달리 전통사찰의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을 수직적으로 재해석해 설계했다. 다시말해 대각전은 90주년 기념문화관 상층 2개층을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부터 일주문, 사천왕문을 지나 귀중 공천장 앞반의 세계로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세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은 일체로서 다시 통합되는 상징적 구조를 띠는데 불교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술극장 현관문을 지나 강당. 로비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면 사천왕상이 새겨진 유리문을 만나게 된다. 사천왕문인 셈이다.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신을 벗고 구품연지(九品蓮池)를 건넌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번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지를 건너 불이문까지는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도록 돼 있다. 연지 건너 6개의 기둥은 6바라밀을 상징하고 있다.

불이문을 지나 법당이 있는 일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쌍견화교로서 지구 올라가는 층층마다 수직면에 연꽃이 새겨져 있어 마치 천장의 연꽃 광천장에서 내려온 연의 꽃비를 사뿐사뿐 밟고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법당 전경.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을 피해 은근한 빛이 법당 전체를 감싸도록 설계했다.

법당 입구 문수전과 보현전에 이르면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온 환희와 함께 구도자에게 법당에 들어가기 전 모든 괴로움과 험된 생각을 다시 한번 비우게 한다.

법당은 예술극장 동근 돌형의 석조간좌에 있었던 기존의 천장을 활어 보를 노출, 중앙의 높은 공간을 그대로 보이게 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존불 앞쪽으로는 여덟개의 기둥이 공간을 증점시키는 듯 하지만 오히려 굳이 없는 세계를 부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확장을 의하고 있어 특이하다. 부처님 뒤로는 전 인류의 인종색을 상징화한 청, 황, 적, 백, 주황색의 사선들이 부처님 광배의 빛이 퍼지는 형상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수없이 많은 작은 부처가 모여 본존불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또 기존의 원형 돌형의 건물모양을 되살려 배치한 크기와 모양, 색상 등 56종류의 불상 만들본은 본존불을 수호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기중은 물론 방학동안에도 늘 굳이 열려있는 대각전 법당은 일반 부처님의 상주처로 조성되고 있다. 만물전에는 현재 2천3백여 부처님이 모셔졌다. 불사비는 동국대 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학교는 본존불에 학교관련 각종 현상자료와 기념물들을 복장. 개교 200주년이 되는 2106년에 개봉할 계획이다. 복장물에는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이스탄불과 신턴대, 뉴욕주립대 등 세계 20개 대학 총장들이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도 있어 관심을 끈다.

대각전은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도당’으로서 보다 ‘대중 속에서 함께하는 도당’으로서 수백년 세월이 갈수록 후세에 계승될 전통사찰로 기대를 모은다. 학생들은 ‘대각전은 정각의 법당에 비해 덜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정각인이 고함의 향기를 풍긴다면 대각전은 신세대적 감각을 갖는다. 젊은 세대에겐 그들의 감성에 맞는 법당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각전은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현재의 사찰건축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통건축의 복제나 어설픈 모방에서 과감히 탈피해 ‘현대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 모델’이 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도필선 기자(psd0@budhapia.com)

동국대 100주년 사업본부장
인터뷰 **보광스님**

“대각전은 이사장님의 관심과 매주 1회 1년간의 스터디를 함께 해온 불교학자, 조각가, 건축가, 불교미술가, 공예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이뤄낸 불시입니다.”
대각전 건축철학을 지휘 감독했던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보광스님은 “대각전은 신앙의 장인 총시에 동국대학교 교육지표인 ‘참사람’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임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분화적 이질감이나 거부감없이 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당 전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장엄한 것도 법당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동국대학교는 ‘자아와 명상’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대각전에서 일주일에 한시간씩 1년동안 32시간의 참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광스님은 “관계자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시대의 문화재를 만든다는 의지로 불사에 임했다”며 “대각전은 한국건축문화사에 이 시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낸 곳으로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법당과 교육기능 조화”

대각전 조성 동참자들

건축 미술 조각 불교학 공예 등 국내 내로라하는 명인 ‘합작품’

대각전은 건축, 미술, 조각, 불교학, 공예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불교적 사상과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며 대각전 건축철학을 지휘했던 보광스님을 중심으로 본존불을 조성한 김영중 조각가, 단청과 소불을 조형한 손원철교수, 대각전을 설계한 이도건축 대표 김개천 사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냈다.

본존불을 조성한 조각가 김영중씨. 70대 원로작가 김씨는 “불상의 조형은 법당의 조형적 요소, 즉 건축적·회화적·공예적 요소들과 어울려 상호 조화를 이뤄야 시각적으로 안정된다. 따라서 대각전 본존불은 지나친 현대화를 피하고 전통불상 조성기법에 약간 변화를 주는 정도로 조성했다”고 전제하고 “안면의 감정을 표출을 고려했던 점은 부처상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점이었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교정의 부처님 상상은 30대 초반의 김씨 작품.

또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손원철 교수는 “문부의 속세와는 다른 종교적 신비감과 심오한 부처의 세계를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정밀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절제된 단청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손교수는 또 “불교적 문양과 소재로 타종교인들이 거부감없이 법당에 들어서서 즐거움과 환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색상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도건축 김개천씨는 “현재 도시 한가운데 지어진 사찰을 보면 3-4층의 화려한 박스건물 위에 지붕층을 기와로 덮어 전통불교건축인양 흉내내고 있는데 대부분이다”며 “어설픈 전통건축의 흉내내기 는 기존의 전통건축과 문화의 파괴행위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그런 의미에서 대각전 건축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전통을 창조해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폭풍속의 기도’. 내원암 벽화.

극한 상황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26 폭풍속 기도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라도 평소에는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하더라도 습관처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모님, 자식이 아프거나 실직, 임사 등 급박한 사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기도는 요령수를 바라지 말고 지극하고도 간절하게 해야한다. 기도심에 들어 간절해지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게된다.

망망대해에 폭풍우가 크게 일다. 일엽편주 배는 기우풍 기우풍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만 같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폭풍우가 잠잠해지길 간절하게 기도 올린다. 이 두 그림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린 작품들이다.

왼쪽 그림은 ‘아무리 심한 폭풍우를 만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엄청난 힘으로 곧 폭풍이 가라앉고 모두 무사하다’는 <관음경>의 내용을 그린 내원암 벽화이다. 오른쪽 그림은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한 사도가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폭풍우를 멈추게 해주고 배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혁립 <예전 법화암 주지>



▷ 미나미야마 화가의 ‘폭풍속의 아아네이아스의 배’, 5세기경. 바티칸미술관 소장.